

막강화력 '삼지토건' 10이닝 12점 불꽃타

양궁 기보배 천하

무등기 사회인야구 1R

역전 또 역전 ... 명승부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감자를 가리는 열전의 무대가 시작됐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1라운드 경기가 23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개막전에서 삼지토건은 6회에만 장단 10안타로 12점을 뽑아내는 막강화력을 발휘하며 밀레니엄을 26-8로 꺾고 대회 첫 승의 주인공이 됐다.

2경기에서는 콜가이스가 1·2회 7점을 만들며 전남대 OB를 상대로 10-3 승리를 거뒀다.

3경기는 20년 전통의 백구클럽과 디펜딩 챔피언 세한기업 재규어스의 '미리보는 결승전'으로 전개됐다. 2회 선취점을 가져간 백구클럽이 3회 3점을 더하며 승기를 잡았지만 재규어스가 2-5로 뒤지던 7회 마지막 공격에서 승부를 6-5로 뒤집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된 4경기에서는 담양애가 11-9로 광남 베스트를 제압했다. 4경기에서 우리필프를 만난 제일공조는 1회 8점을 내주고도 뒷심을 발휘하며 12-9 역전승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콜가이스와 전남대 OB의 경기에서 콜가이스 이준석이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림픽 이어 월드컵 파이널 우승 ... 남자부는 김우진

기보배(24·광주시청)와 김우진(20·청주시청)이 한 해의 최고 공사를 가리는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기보배는 23일 일본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국제양궁연맹(FITA) 월드컵 파이널 여자부 결승전에서 디파가 쿠마리(인도)를 6-4(23-26 25-27 28-24 26-23 26-25)로 꺾었다.

런던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고서 월드컵 파이널까지 제패해 올해 세계 양궁을 가장 빛낸 선수로 우뚝 섰다.

월드컵 파이널은 한해 4차례 열리는 월드컵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남녀 선수 8명씩을 초청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을 가리는 '세계 왕중왕전'이다.

여자부 결승전은 기보배가 주인공인 대역전극이었다.

세계랭킹 1위 기보배는 2위 쿠마리에게 첫 두 세트를 내주고 0-4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다. 한 세트만 내주면 패하는 공지에 몰렸으나 기보배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기보배는 쿠마리가 중압감 때문에 쏟아낸 실수발에 편승해 3, 4, 5세트를 내리 따내 짜릿한 역전승을 낚았다.

김우진은 브라데 엘리슨(미국)과의 결승전에서 폴레트가 모자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28-28 28-28 26-26 28-25 26-28(8-8))로 이겼다.

세계랭킹 4위 김우진과 1위 엘리슨의 맞대결은 마지막 한 발까지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었다. 두 선수는 1~3세트를 비기고 4, 5세트를 나눠 가져 화산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에 들어갔다.

둘 다 8점을 쏘았으나 심판은 김우진의 화살이 과녁 중심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판정, 챔피언 타이틀이 김우진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보즈니아키 "이맛이야" 2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र्ट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DB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전에서 카네피를 꺾고 우승한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트로피에 키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길바쁜 광주FC 또 무승부

K리그 32R, 대구와 1-1

광주 FC가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K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얻는데 만족했다.

경기시작 4분 만에 광주의 선제골이 터졌다.

문전에 있던 박기동이 중앙파울로가 왼쪽에서 밀어준 공을 잡아 슈팅을 날리며 대구의 골문을 열었다.

박기동의 시즌 3호골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양팀의 공격은 전반 26분에 나온 대구의 골과 함께 불을 뿜었다.

광주 골대 앞에서 벌어진 불경향, 두 차례 수비수가 공을 걷어냈지만 대구 최호정이 0-1 헤드킥으로 골을 집어넣으며 승부를 1-1 원점으로 불렀다.

이후 대구가 지넨슨의 스피드를 앞세워 광주진영 공략에 나섰다. 광주는 선제골 주인공 박기동이 공격의 중심이 됐다.

전반 37분 박기동의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왔다. 골키퍼 김교빈의 손에 막고 흐른 공을 중앙파울로가 잡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만 아쉽게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19분 광주와 대구가 선수교체 카드를 사용해 분위기를 반전을 꾀했다.

광주가 안동혁을 빼고 안성남을 투입했고 대구는 김대일 대신 송제현을 투입했다.

선수 교체와 함께 대구가 먼저 득점 기회를 잡았다. 후반 21분 대구 레안드리뉴의 기습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갔지만 골이 어 박민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위기 상황에서 광주의 맹형 박호진의 선방이 빛났다. 박호진은 키커로 나선 지넨슨의 골을 막아내며 역전 위기를 막아냈다.

후반 36분, 이번에는 광주가 중앙파울로의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맞았다. 골 에어리어를 눈 앞에 두고 중앙파울로가 상대 수비수들에 막히면서 파울을 얻어냈다.

프리킥 상황에서 중앙파울로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벽을 막고 나오면서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광주는 상대전적에서 2승2무로 앞선 대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서재응이 완봉승을 거둔 뒤 주먹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서재응 생애 첫 완봉승

360이닝 무실점 행진

KIA, 7-0 넥센 대파

KIA 서재응이 아트피칭으로 생애 첫 완봉승을 이뤘다.

서재응은 2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9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7-0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시즌 8승째를 수확한 서재응의 방어율은 2.64까지 내려갔다. 토종 선발진 중 1위다.

9회까지 무상에 내보낸 주자는 단 5명. 5회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던 서재응은 6회 처음으로 주자를 허용했다. 1루수 황정립이 선두타자 문우람의 타구를 놓치면서 베이스를 내쳤다. 3루까지 내달리던 문우람이 태그아웃 되면서 원 아웃.

실적으로 기록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지재욱과 신현철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1사 1·3루의 위기가 찾아왔다. 서진장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 장기영의 방망이가 헛볼면서 무실점 기록은 계속됐다.

7·8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서재응이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우익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투 아웃, 생애 첫 완봉승에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다.

유재신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이날 첫 사사구를 기록한 서재응은 차화준의 안타로 2사 1·2루에 몰렸다. 하지만 대타 박현도의 땅볼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27번째 아웃카운트가 완성됐다.

넥센전 부진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실점 행진의 원동력이 됐다. 7월24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던 서재응은 이후 선동열 감독과 이강철 투수코치와 상의를 거쳐 투구폼에 변화를 줬다.

왼쪽발을 들어올린 뒤 잠시 멈추던 키킹 동작에서 멈춤 동작없이 바로 공을 던지는 폼으로 바꿨다.

투구폼을 수정하면서 직구에 힘이 실렸다. 직구 최고속이 147km를 기록하는 등 힘이 더해진 직구를 구석구석 쫓아내면서

상대 타자들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완봉승으로 지난 2일 중간계투로 나왔던 한화준 1이닝을 더해 360이닝 무실점 행진이 계속됐다.

최근 5번의 선발 등판에서 소화한 35이닝 동안 던진 공은 414개. 한 이닝을 막는데 11, 8개의 공이 필요했다는 계산이다. 35이닝을 14개의 피안타로 막으며 탈삼진은 16개를 뽑아내는 효과적인 잔물투구였다.

한편 야수진 막내 안치홍이 5타수3안타4타점의 맹활약으로 맹형 서재응의 승리 도우미가 됐다.

1회초 김선빈의 안타에 이어 1루수 박병호의 송구실책으로 맞은 무사 1·2루, 안치홍이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로 1-0을 만들었다. 나지완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2-0.

2회 2사 2·3루에서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로 2타점을 더했다. 안치홍은 5-0의 리드가 이어지던 8회 2사 1·2루에서 우익수 키넴기는 2루타로 4번째 타점을 올리며 서재응의 승리에 해기를 박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당중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2관왕

금당중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금당중은 23일 끝난 제4회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배드민턴(남중부)과 피구(여중부)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성덕중이 축구 남중부, 봉선중이 농구 남중부 우승을 차지했다. 월봉중과 영선중은 각각 남중부 티볼과 축구 1위에 올랐다.

무진중은 배드민턴 여중부 패권을 차지했다. 초등부 티볼 경기에서는 월곡초가 유안초를 꺾고 우승팀이 됐다. 초등부 축구는 결

승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 5월12일 개막해 5개월간 계속됐으며, 중등부 6개종목(축구, 농구, 티볼, 배드민턴, 축구, 피구) 122개팀 1969명과 초등부 2개 종목(축구, 티볼) 49개팀 80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교육감배대회를 거쳐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